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미가서-

공의를 외치라

(미가 3장 1 - 12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어리석은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나올 뿐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나라 전체가 썩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힘의 균형(The balance of powe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균형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정부를 훌륭한 정부라고 합니다.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check and balance)은 민주주의 정부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가 부패했을 때 종교인은 정부가 다시금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까지도 심하게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서 계속 타락의 자리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법정이 부패했고, 궁궐이 타락했고, 성전이 더러워져 이스라엘은 희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의 부패상을 애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샅을 위하여 예언을 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교회는 해야 할 말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또한 돈으로 타인의 지지를 얻는 정치인과 공의를 잃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한탄하며 회개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는 마침내 공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1. 지도자에 대한 심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1절).

다스리는 자의 존재 이유는 세상에 정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정의를 외면하며 짓밟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미워했고 정의를 굽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족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고 고기처럼 하는도다”(2-3절).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니 그 나라가 갈 길은 자명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어두운 사회라고 합니다. 반면 선한 사람들이 은혜를 힘입고 득세하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하게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뼈의 살을 뜯어먹는 잔인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단의 탐심주의입니다. 이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4절).

탐심이 가득한 세상의 백성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나올 뿐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나라 전체가 썩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 선지자의 부패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5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입에 무엇을 넣어주면 평강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외쳤습니다. 물질에 가장 초연해야 할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물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은 ‘개’라고 하며 개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빌 3:2).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짐 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저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6절).

거짓 선지자는 참된 비전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8절).

미가 선지자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이스라엘의 죄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패한 선지자들이 돈에 팔려 인간의 소리를 할 때 미가 선지자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죄와 야곱의 허물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는 하나님의 종이 말씀할 때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3. 통치자의 죄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9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정의를 미워했습니다. 도적은 어둠과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10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벽돌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피와 죄로 건축합니다. 다시 말해서 잔인한 행위와 더러운 죄를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의 가정은 무엇으로 건축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다 돈을 위해 정치를 하고 선지자 노릇 하며 재판관 노릇을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11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단 악의 뿌리입니다(딤후 6:10). 모든 부정과 부패 뒤에는 돈이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구실을 못하고 있으니 공의가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12절).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죄인을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오늘 그런 나라와 백성에게 복을 주실터이니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3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7,8월중 부서별 시행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교회 각 교회학교에서는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각 교회학교는 부서별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교회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일정을 세웠으며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로 정해진 주제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뜨거운 여름 생명이 되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각 교회 학교별 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7/21 - 7/22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집	이종윤 박금실
유치부	7/21 - 7/22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집	이종윤 이규정
유년부	7/21 - 7/23	교회	친구를 예수님께	이종윤 조대영
초등부	7/21 - 7/22	벨엘하우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집	이종윤 김희정
중등부	7/28 - 7/30	양주새터오반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이종윤 윤영국
고등부	7/28 - 7/30	양주새터오반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이종윤 오정식
대학부	7/16 - 7/19	원주치악관광동원	하나님, 비전, 나 그리고 대학부	이종윤 서명철
청년부	8/18 - 8/21	설악산추양수양관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이종윤 이태훈
사랑부	7/17	교회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이종윤 이성득
에바디부	7/28 - 7/30	태농원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이종윤 임규현
신혼가정부	7/17 - 7/19	설악산 한화콘도(예정)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이종윤 이규정
장년5부	7/17	교회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이종윤 김운호

2003년 하반기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 추가임명

교회는 교회학교 및 찬양대의 양적 성장과 연초 각 교회학교 및 찬양대에서 교사 및 찬양대원으로 임명받고 봉사하였으나 본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할 수 없는 이들이 다음에 따라 하반기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명단
유아부	권소영 김수옥 김영희2 김옥란 박성우 박진현 박찬용 왕재용
유치부	박수진 신범석 오은 장윤정 정은혜 조대선
유년부	권신영 김윤미 이상은 이슬미 이영애 이우리 정유정 정태환 조건경 조현지 한정연 한춘일
초등부	김경현 김규현 김수정 김예미 배석훈 안명덕 이은영 조민희 최순옥
어린이찬양예배	강혜주 김영숙 김필구 노재균 박재원 양혜선
어린이수요예배	박진경 백정순 이영애
중등부	신봉하 전숙향
새가족부	노경신 오길탁 이수련 이진구
사랑부	김철한 이순규
에바디부	김성희 김용주 남민복 오순실 오영숙 이순임
장년5부	정효자 최임수

찬양대	찬양대원
가브리엘	박현주 김이영 유기순 김동진 황예자 박은영 김희정 박진경 오경례 이윤진 임명숙 고금란 김민진 변성선 유은경 김병순 백도환 김예언 김정훈 허승연 배주우
할렐루야	김슬의 김인숙 송미라 임분도 홍승아 김영자 김연다 백정순 유외숙 백병철 이태상 최병무 김성호 김연철 김철욱 안성현 유윤상 전광영 유영호 오승민
임마누엘	성기원 홍진선 최요섭 김근 김승민 박경원
베들레헴	김상열 신봉하 이종창 신종건 김원웅 박찬성 오지열 오영철 유영호 이갑진 진교남 최명수
호스나	강미숙 문윤숙 고금란 박수옥 이은희 심명숙 이명옥 진경옥
시온	김지순 배은영 진숙향 유숙인 조희경 최영옥 장상국 이정휘
은빛	임명자 이윤영 서창호 최정숙 선우신자
갈렐	박경희 정효자 정병무
그레이스랜드벨과이어	송소영 박창혜 김희정
글로리아	고금란
필그림중창단	한정연
아멘관현악단	이순정(플루트) 이고은(바이올린)

홍해작전 승전감사에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오늘 찬양예배는 지난 6월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계속되었던 2003년 홍해작전의 승전을 감사하는 승전감사 예배로 드리게 된다. 올해 홍해작전은 본당 2층과 3층을 채운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가운데 홍해작전 참석 성도가 연인원 11,800명을 상회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도 하였다. 이는 매일 약 600여명의 성도가 작전에 참가한 것으로 지난해 보다 평균 200명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홍해작전 참모부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일 동안 개근한 성도는 250명으로 많은 성도들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는 기도카드를 제출한 모든 성도들에게 작은 기념품(비누)을 선물하기로 하였다. 더욱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한다.

전도학교 5기 수료식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서울교회 전도학교 5기 수료식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전도학교 5기 생들은 지난 4월13일(주) 교육을 시작하여 오늘까지 총 12주의 교육 과정과 중점 전도지역인 은마아파트에 2인 1조씩 짝을 지어 동별로 배정을 받아 이미 전도학교를 수료하고 전도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4기 생들과 함께 전도실습을 하는 한편 주일에는 802호실에 모여 전도보고와 교육을 받았다.

6월말 현재 70인 전도대(대장 김광신 장로)는 174명을 전도하였으며 올해 500명을 전도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70인 전도대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오늘 수료하는 전도학교 5기 수료생의 명단과 6기 교육생의 다음과 같다.

<5기 수료생>

이정남 집사 손성실 집사 서중숙 집사 박이선 집사 이난화 집사 최미경 집사 조신임 집사 문옥일 집사 김영숙 집사 오가연 집사 심명숙 집사 이미연 집사 이상 12명

<6기 교육생>

김금매 성도 김명애 집사 김영희 집사 윤용근 집사 남옥진 집사 박중숙 집사 박진경 집사 석상화 집사 송인숙 집사 신봉하 집사 신윤수 집사 안명덕 집사 안준홍 집사 오경례 집사 오은숙2 집사 우경애 집사 원용범 집사 유명희 집사 이명숙 집사 이명옥 집사 이미연 집사 이병현 집사 이연정 집사 이창희 집사 인용자 집사 장기숙 집사 장은영 집사 전숙향 집사 진교숙 집사 채경희 집사 최낙준 집사 최은석 집사 이상 32명

대학부 부지도 임명

교회는 대학부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장신대 신대원에 재학 중인 손재영 선생을 부지도로 임명하기로 하였다. 한편 그동안 대학부를 지도하여 온 장재환 목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였다

홍해를 건너 사람들!

2003년 홍해작전에 입한 교회학교들의 승전보가 다채롭다.

대부분의 교회학교들이 홍해작전 개시일인 6월6일 새벽 5시를 기점으로 일사분란하게 기도 행진과 전도행사 등을 함께 시작했는데, 무사히 홍해를 건너 교회학교들을 찾아가 보았다.

먼저 교회학교의 막내적인 유아부. 유아부는 새벽기도회 말고도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유아부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교사들과 학생들이 기도의 행진을 가져왔다. 5~6명의 꼬마학생들이 새벽기도회에 참여했다. 유치부 역시 교사교육 겸 기도회를 가지며 홍해작전 개시일과 승전일을 총동원날짜로 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는데, 교사들은 기도제목을 미리 나누고 학생들의 기도제목을 담임교사들이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서로 간에 연합되는 귀한 경험의 시간들이었다고 한다. 초등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새벽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학생들에게 홍해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일이예배 시간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담은 영화를 상영하고 시청각교육을 병행했다. 각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반별로 기도동아리를 만들고 학생들의 기도제목을 세심히 살피며 돕고,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오늘(6/29)은 그동안 기도한 친구들을 초등부로 초대하는 날로, 홍해작전 기간동안 매주 토요일 대곡초등학교 앞에서 가졌던 떡볶이 전도와 기도의 행진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중고등부 역시 분주한 홍해작전 기간을 보냈다. 6월 6일 홍해작전이 막 시작된 아침 6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모여 모세기도회를 열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하교시간에 학교 앞에서 전도와 심방 행사를 가졌다. 새벽잠을 설치고 곧바로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참여를 하였고, 고등부에는 매일 새벽 개근을 한 소녀도 있다.

대학부는 새벽 5시 교회에서 홍해작전에 참여하면서 이 기간동안 저녁 10시에는 교회와 대학부를 위한 기도시간을 정하고 아침저녁으로 기도의 행진을 가져왔다. 또한 토요일 3시에 7/16-7/19로 예정된 여름수련회를 위해서 특별기도회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잃은 양을 위해 기도하고 연락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청년부 역시 내달 13일 가질 calling 행사(잃은양찾기)를 위해 토요일집회시간과 새벽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횃불을 밝혔다.

대부분의 청년부원들은 새벽기도회 후 곧바로 일터로 나가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홍해작전에 참여하고 아침을 나누어 새벽 이슬같은 모습으로 든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교회의 젊은 일꾼들의 순수하고 뜨거운 기도와 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의 기도와 수고가 어우러져 이 여름 무럭무럭 성장하는 교회학교들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나소정 (편집부)



이예선 집사(10교구)

홍해작전은 항상 나의 작전이 아닌 다른 이들의 작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빨리 일어나야 하는 데 일할 때 졸리면 어떡하나, 잠을 못 자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플텐데..... 남편은 직장에서 피곤하지나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항상 홍해작전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은 오고 홍해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참석해야 할 터인데.... 그런데 뜻밖에도 둘째 원식이가 홍해작전 새벽기도에 가겠노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원식이가 하루정도 가고는 그만 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생각은 완전 빛나졌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깨울 때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오늘은 그만 설까?"라고 물어보면 별떡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달려왔습니다.

원식이의 믿음으로 저희 부부도 홍해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4대째, 저는 3대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물려주려 합니다.

내년 홍해작전에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에 가겠노라고 원식은 벌써부터 약속을 합니다. 저희는 이번 홍해작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번 홍해작전에 특별한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새벽 기도한 그 자체만으로도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와 더불어 홍해작전에 승전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민혜정 성도(3교구)

지난 6월6일 홍해작전이 시작되던 날, 친정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은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며 어릴 적부터 저는 주님의 은혜로 홀로 신앙생활을 하여왔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을 전도하기 위해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으나 워낙 성격이 강하신 친정아버지는 말씀 듣기를 거부하셨으며, 저의 신앙생활조차도 탐탁치 않게 여기셨으나 어쩔 수 없이 묵인하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 아버지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해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 하나가 눌러있는 듯한 죄책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우리의 홍해는 바로 쓸데없는 걱정이란 중요한 사실은

오래전부터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던 중 점점 병세가 심해져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는 음식조차 드시지 못하고 영양제 수액으로만 간신히 연명하시는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간병하면서 잠잠이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토록 완고하시던 아버지가 조금씩 저희 말에 전과 같이 강하게 부정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 계시는 반응이 보이기 시작하던 중 6월 6일 홍해작전이 시작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꼭 참석하여 아버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자는 결심을 하고 6일 첫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속에 불일 듯 하는 기쁨과 앞을 가리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이 기쁨을 아버지에게 전하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들고 바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시는 모습을 뵈고 이제 아버지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직감하고 "저 하나님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해도 될까요?"라고 묻자 늘 고개를 가로저으셨던 분이 기운이 없는 와중에도 뚜렷한 정신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느냐고 묻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저는 홍해작전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배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이후 홍해작전에 참여하며 다짐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겠다고.

고 박철훈 장로님 추모의 글

당신이 가지고 나니

사랑하는 박철훈 장로님

1983년 함께 장로 안수를 받고서 서로 아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역한지도 벌써 20년이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성숙한 모습으로 힘써 일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장로님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안타까움과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저에게 참 좋은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당신의 젊음을 다 바쳐 섬기던 교회를 가장 좋은 돌로 건축하고 싶은 일념에 가족과 생업을 뒤로하고 고단함을 잊은 채로 전국 팔도강산의 돌산을 함께 찾아다니던 그 시간들을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1991년 빈 손으로 그 교회를 떠나 논현동 건물의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당신에게서 저는 진정한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주님의 전을 짓기 위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함께 땀흘리던 당신과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인해 저의 가슴이 아려옵니다.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교회가 세워졌고 박찬 감격과 감사의 찬송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종운 목사님의 뜻을 따라 더욱 열심히 헌신, 봉사하여야 하는 이 때에 장로님은 하나님의 더욱 크신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의 곁을 떠나시는군요.

육신의 고통으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시지 못하시면 서도 예배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의 주차장 부족 현



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치동 인근 지역에 우리가 사용할 만한 공간이 있을까 찾아다니시던 장로님! 당신은 인근의 지하주차장을 발견하시고는 그 앞에서 이곳을 꼭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박철훈 장로님!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 봅니다.

당신은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는 자상하고 인정이 넘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좋은 친구였고 한 여인의 자상한 남편이었으며 자식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훌륭한 아버지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셨던 장로님, 암 수술을 받고도 늘 씩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새벽 재단을 쌓으시던 장로님, 끝까지 당신의

자리를 지키시며 성도들의 본이 되어 주신 당신을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당신을 다시 만날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마도 장로님은 우리가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잔잔한 당신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당신은 서울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어 한국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기 위해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사셨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여한 없이 일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할 장로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을 보내 드립니다.

당신이 뜻을 따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서로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좋은 친구요 동역자였던 박철훈 장로님! 당신과의 고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반갑게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당신을 기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03년 6월 24일

당신을 친형님 같이 모시던

장로 오정수 올림

2003 청년 Calling

권재현(청년부 회장)

서울교회 등록청년 중 청년부 불참인원들을 청년주일 집회로 초청하여 청년공동체로의 연합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삶에 오는 하나님의 Calling과 청년부에 대한 하나님의 Calling을 깊이 묵상하며, 청년 회원들 간의 교제의 회복과 청년부의 양적 부흥(목표: 주일집회 참석인원 150명), 신앙 공동체 본연의 모습 회복하고자 오는 7월 13일(주일), 청년부는 Calling 행사를 가진다. 2003 흥해작전기간 동안 청년부원들은 이를 위해 잃은양을 찾는 예수님을 좇아 합심하여 기도해왔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잃은 청년들의 명단을 찾고 GBS 조장기도회를 시작했으며, 각 청년부원들은 이들의 명단을 나누어 받아 흥해작전 중에 집중적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개별기도 대상자를 위해 수시로 기도하고 연락을 취하며 엽서 및 문자메시지, 전화 심방 등으로 총력을 기울이

는 가운데 오는 13일 주일에는 주일 3부 청년예배 후인 오후 3:30부터 601호와 8층 식당에서 초청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초청집회는 이태훈전도사님의 말씀인도와 청년부의 여러 소모임을 소개하고 발표하는 시간, 청년들의 소개와 환영의 시간, 식사 및 교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청년들의 즐거운 페스티벌이 되리라 기대한다. 적극적으로 동참한 청년회원들에게는 KBS특별상과 16대교회특별상, 만만나 특별상 등 즐거운 제목의 시상이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집회에 초청된 청년들의 꾸준한 출석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기도가 교사와 임원들을 중심으로 모색되고 있다.

주일예배 후 청년주일 집회에 불참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기관별 식당 봉사자

6.29 (주일) - 안드레 선교회 7.6(주일) - 베드로선교회

동정

- 이종운 목사는 7월1일(화) 미래한국 신문 창간 1주년 및 인터넷 신문 창간 기념 감사예배에서 설교한다. 3일(목)기독교 학술상 시상위원회를 소집한다.
- 당회는 김광신장로를 당회 서기로, 이원형 장로를 신혼가정부 부장으로, 임상현 장로를 국제 오르간 심포지움 준비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한다.
- 이사: 최형열집사, 김찬권권사(2교구)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15-14 논현아트빌 601호 전화:02-511-5691
- 김점숙 집사 가정: 용산구 이촌1동 한강삼익apt 1-703 792-8622
- 강석우 집사, 나연신 집사: 서초구 방배동 1-60 그레이스빌
- 금주의 식사: 이경희 권사가정 (고 박철훈 장로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금년 상반기를 승리로 마무리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3.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4. 여름 농촌 전도대·단기선교팀 파송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